

다산포럼



김순국
세명대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화회 회장

요즘 방송계가 난리다. 공중파 방송의 두 축으로 '영향력 1위'인 KBS와 '신뢰도 1위'인 MBC가 연일 정부 로부터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다가 급기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의해 지난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이 해임됐고, 21일에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됐다. 식민지 탄압에서 해방된 광복절을 전후해 일어난 일이다. 해임의 사유는 '관리 감독 소홀'이다. 남 이사장은 법안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하고, 권 이사장은 '공짜 주식 취득' 의혹이 있는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죄를 물었다. 정말 그런 사실이 해임시킬 정도의 중죄가 된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인데, 세 명 중 두 명이 여당 측인 방통위에서 일방적으로 서둘러 해임을 의결해 버렸다.

왜 그렇게 거대 공중파 방송사들을 정권이 서둘러 장악하고자 했을까. 권 이사장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 보겠다는 꿈부림이다"고 했다. 새로 임명될 '언론 장악 기술사' 이동관에게 "꽃길"을 깔아주려는 정권의 눈물겨운 노력이 결국 양대 공중파 이사장의 해임으로 이어졌다는 건 누가 봐도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이미 작년 9월 MBC의 대통령 비서관(너무 많이 정점화 돼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다) 보도를 "맹맹을 훼손하고" "국익을 해했다"며 맹공을 퍼부어 때

언론 자유와 언관(言官)의 책무

터 '언론 탄압'은 예고돼 있었다. 11월 동남아 순방 때에는 전용기에도 태우지 않더니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지난 8일에는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로 송부하기도 했다. KBS에게는 수입의 근간이 되는 시청료 분리정수로 압박해 왔다. 지난 7월 방통위에서 시청료 분리정수를 의결하더니 8월 11일에는 국무회의에서도 시청료 분리정수를 위해 방송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제 KBS는 남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를 해임하고 그 자리를 여당의 인물로 채우면 11명 이사장의 여야 추천 비율은 6대 5가 되고, MBC는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여 9명 이사를 여당 인물로 보완하면 방문진 이사장의 여야 추천 비율은 5대 4가 된다. 이렇게 되면 KBS와 MBC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법적'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셈이다. 더욱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만 이루어지면(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그리 되겠지만)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완성된다.

여당에서는 이제 드디어 언론이 '정상화'됐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언론 탄압'이라고 한다. 어느 쪽이 맞을까. 객관적인 지표를 보자. 6월 16일-19일 기자회견의 조사에 따르면 현직기자 8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전한다. 이명박 정부의 홍보수석을 맡으면서 언론 탄압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여당 대선주자였던 이승민 전 의원조차 MBC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이, 권력이 방송을 본격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첫 출발로 보인다"고 말할 정도다. (그럼에도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변한다)

국내는 그렇다고 치자. "MBC를 향한 공세와 차별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언론의 날인 5월 3일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에 네 계단이나 떨어진 47위를 기록했다. 가장 높을 때는 노무현 정부인

2006년 31위였으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인 2022년은 43위였다. 여당과 보수 측의 주장대로 언론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히려 그 지수가 올라가야 할 것이다. 내년 5월에 발표되는 '언론자유 지수'가 궁금하다.

KBS와 MBC의 정치 작업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제 방송들은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일 것이다. 거대 공중파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삼아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을 통한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 내려고 할 것은 자명하다. 지금도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편파(향) 보도'나 '가짜 뉴스'라며 "국익을 해친다"고 옥박지르는데 이제 어느 언론이 비리의 목소리를 내겠는가. 대다수 언론들은 알아서 처신할 것이고, 정권에 아부하려는 '기레기'들만 가득할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언론과 유사한 언관(言官)이란 관리가 있었다. 당시 사간원(司諫院)이나 사헌부(司憲府) 관리로 임命的 잘못을 간하고 관리들의 비행을 규탄했던 벼슬이다. 언관은 사대부라면 응당 해볼 만한 벼슬로 왕이나 권신으로부터 무리한 외압이나 탄압은 없었다. 그래야만 국가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왕정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언론 자유'가 있었던 셈이다.

다산(茶山)도 큰 아들 학연(學淵)에게 벼슬살이에 대해 지켜야 할 가계(家範)를 일러주면서 "미판말치에 있을 때도 신중하고 부지런하게 온 정성을 들여 맡은 일을 다 해야 한다"며 "언관(言官)의 지위에 있을 때는 아무쪼록 남마다 적절하고 바른 의론(議論)을 올려서 위로는 임금의 잘못을 공격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숨겨진 고통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시대의 다산이 현재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보다 훨씬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놀랍다. 요즘 KBS나 MBC의 사태를 보도하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언론 자유'가 다산이 살았던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NGO칼럼

에너지 취약계층 아이들의 여름나기



변정량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옹호사업팀장

올해 여름만큼 폭염경보 문자를 많이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삶을 정도로 더위가 심하다. 너무 더워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다.

올해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중 에너지 빈곤에 맞춰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지자체와 협업하여 108곳의 가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냉방기기가 없는 가정 15곳을 발굴했고, 그 외에 냉방기기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거나 미비하게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대다수 가정이 '전기 또는 가스요금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에 따라 여름철에 가장 고민되는 점으로는 49%가 '전기요금과 같은 경제 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온열질환 등 건강문제, 음식문제, 누수 또는 주거시설의 안전 순으로 답하였다.

작년 8월에 아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며 방문한 가정의 집안이 너무 더워 둘러보니 그 집엔 에어컨이 없었다. 아이는 몹시 더운 오후 시간엔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의 친척 집에 가다가 저녁 무렵 집에 들어온다고 했다. 가정형편에 따라 에어컨이 너무 오래 돼서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 봐 사용하지 않고 선풍기만 틀며 살고 있다고 했다. 선풍기가 더운 바람만 순환시키는 집은 시원할 리 없었다. 냉방기기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자체나 초록우산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고 해도, 어떤 가정은 전기요금 부담된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가정형편에 따라 에너지 비용 지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에너지 빈곤에 더욱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 더운 여름에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기후위기로 무더위가 더 심해지면서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할 때 아동이 작성한 내용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라는 말이 있었다. 그 계절에 맞는 당연한 소리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알맞은 온도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국가와 의무 이행자들이 아동이 알맞은 온도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운 여름 잘 보내라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름 지나고 바람이 불면 곧 겨울이 온다. 에너지 빈곤 가정은 매해 반복되는 계절 속에 '알맞은 온도'를 찾기 위해 또 얼마나 참고 애써야 할까. 지난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빈곤층은 주로 노후화 된 건물을 거주하는데 33곳의 가정이 에너지 중단 경험을 했고 거의 대다수 가정이 난방비 지출에 대해 걱정을 했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 학습비로 지출하고 싶지만 여름과 겨울철은 주로 에너지 비용에 지출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에너지 빈곤으로 아이들은 얼마나 또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아동의 주거권과 관련하여 연구조사 하면서 에너지 빈곤은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국가와 의무 이행자들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를 어디에서 줄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빈곤층에 에너지를 지원하고 모든 아이의 가정에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아동의 기본권 증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고

갈등관리 잘해야 조직이 발전한다



임재석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행정학박사

이 세상에서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 우리가 숨 쉬고 마주하는 어느 곳에도 갈등은 존재한다. 다양성을 가지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치관 사이에 갈등이 증가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다. 때론 사소한 갈등도 심각한 분쟁 양상으로 표출되거나 확산되기도 한다. 그리고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 인식과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조직 내 갈등은 불가피성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통합적 인식이 필요하다.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교육 현장의 갈등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더 예민하고 관심이 높다. 교육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가 떨어져 결국 교육정책은 실패한다. 그래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

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측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성패가 갈등 관리에 있음이 분명하다. 교육 갈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갈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 이슈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적 지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전통적 갈등 해결방식으로는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 조정, 중재 등의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보다는 법원을 통해 모든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재판의 효율성에도 자칫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불가피하다.

동의보감에 '통족불통 불통즉통(通則不痛 不通即痛)'이란 말이 있다. 비유하면, '통이 되면 고통이 없고, 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는 뜻으로 소통을 강조한다. 막힘은 갈등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적이다. 소통을 잘하면 조직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사고방식 차이와 의

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내 갈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갈등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조직문화의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서로 양보와 타협이 없는 치킨게임으로는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역지사지 태도가 필요하다. '아전인수'는 갈등의 씨앗이지만, '역지사지'는 갈등을 해결한다. 역지사지는 수많은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감 능력과 균형 시각을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은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갈등관리를 잘해야 조직이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다. 비단 교육 현장뿐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갈등관리의 조정,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게 교육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 조직의 업무 성과로 연결한다면 그 조직은 발전할 것이다.

社說

전방·일신방식 터 개발 이행 조건 명문화해야

광주를 대표하는 근대 산업 유산인 전방·일신방식 공장 터 개발 사업이 공공성 보다는 사업자의 개발이익 확보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업자가 광주시민들의 숙원인 복합쇼핑몰과 호텔 건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이른바 '떡튀 방지 장치'가 없다는 것으로 사업자가 돈이 되는 아파트만 짓고 다른 사업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현 재로서는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와 공공기여 방식을 놓고 한창 줄다리기가 중이다.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지가 상승분의 얼마를 공공기여액으로 할 것이지가 최대 관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자의 떡튀 방지 장치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광주시는 사업자에게 여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맡겼다가 돈이 되는 골프장만 짓고 약속했던 호텔 등 관광시설을 짓지 않

은 아픈 기억이 있다. 더구나 전방·일신방식 공장 터 개발 사업은 아파트가 4186세대로, 상무 2지구 부지에 비해 면적은 63.7%에 불과한데 아파트 공급량은 1.7배에 달할 정도로 고밀도 개발이 예정돼 있다. 돈이 되는 아파트 비중이 많은만큼 사업자가 복합쇼핑몰과 호텔 건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광주시가 여등산 관광단지 개발이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자에게 사업비의 10%를 협약이행보조금으로 내도록 한 것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전방·일신방식 터 개발은 광주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여부를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업자의 떡튀 방지를 위해 이행 조건을 명문화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사업 계약 미이행 방지를 위해 협약이행보조금을 내도록 하고 아파트와 복합쇼핑몰·호텔을 동시 완공하도록 명문화 해야 할 것이다.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드시 결실 맺도록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여·야가 동참하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를 구성하기로 해 주목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옛그제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병훈(동남읍)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를 꾸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 개헌안 발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국회의원 200인 이상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는 여·야의 공동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추진본부의 활동이 기대된다. 정치권 역량을 결집할 구심점을 마련했다는 데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 공약으로 제시해 추진됐으나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법이

개정될 때 5·18 정신은 반드시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집권 1년이 지났음에도 진전이 없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가 추동력이 돼 개헌 논의를 개시한다면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5·18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해 왜곡과 혐오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현안이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사실상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약속대로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고 국민의회가 가세한다면 결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는 국민 여망대로 정치권 협력을 이끌어내 5월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91년 개봉했던 영화 '불을 찾아서'(감독 장지우 아노) 끝 장면은 여운을 남긴다. 선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의 소재는 '불'이다. 타 부족의 습격으로 불을 꺼뜨려 버린 한 부족은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부족은 결국 불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영화는 여러 난관을 겪으며 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남녀 주인공이 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쳐다보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여자는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 선사

달에 첫발을 내디딘 후 50여 년 만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이스라엘 등이 자원개발 등 실용적인 목적에서 경쟁에 뛰어들었다. 탐사에 나선 주요 국가들은 지하에 얼음층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달 남극 주변을 주 탐사지로 삼고 있다.

슈퍼 블루문

달은 인류의 과학 발전을 촉진시켰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굴절망원경을 직접 만들어 1609년 11월 처음으로 달을 봤다. 달 표면은 유리구슬처럼 매끄럽지 않았다. 곰보 자국같은 많은 분화구가 있었다. 이듬해 1월에는 목성을 관측해보니 네 개의 위성(달)이 주위를 돌고 있었다. 그는 천동설을 신봉하던 시대에 지동설을 뒷받침 할 근거를 발견하며 천문학사에 커다란 획을 그어 준다.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붙었다. 인류가

12월 달 궤도에 탐사선 '다누리'(KPL0)를 진입시킨 한국은 2032년께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더 문'(감독 김용화)처럼 하루빨리 한국 우주인이 달 탐사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는 31일 보기 드문 '슈퍼 블루문'이 뜬다. '슈퍼문'(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 뜨는 보름달)과 '블루문'(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이 겹쳤다. 아무리 바쁜 일상일지라도 그날만큼은 한 번 하늘을 올려다 볼 일이다.

/송기호 예방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政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정 치 부 220-065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간 사 부 220-0663
경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